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태현이 삼류경설을 제시한 까닭은?

1. 해동 유가업의 비조

원효와 경흥과 태현은 신라의 삼대 저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 태현(太賢, 680?~764?)은 유가(瑜伽) 유식(唯識)과 계율(戒律)의 대학자로서 한중일 삼국의 석학으로 존경을 받아 왔다. 고려의 일연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봉(道峰)과 일본의 명조(明照)까지도 그에 대한 전기를 짓거나 자신의 저술에서 그를 기리고 있다. 『삼국유사』의해,편의 「현유가 해화엄(賢瑜伽 海華嚴) 조목에는 신라 경덕왕대의 유가계 대덕 태현과 화엄계 대덕 법해(法海)의 법력 게임 설화가 실려 있다. "경덕왕은 계사년(753) 여름에 크게 기뻐서 태현을 대궐로 불러 『금광(淸)경』을 강론하게 하여 단비를 빌도록 하였다. 하루는 재식을 올리려고 바리때를 열어놓은 지 오래도록 공양하는 이가 정한수를 늦게 올렸다. 관리가 꾸짖자, 공양 올리는 이가 말하였다. "공의 생애 물이 말다 먼 곳에서 길어오느라 늦었습니다." 태현이 듣고서 말하였다. "어째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이윽고 태현이 낮 강론을 할 때 향료를 받들고 묵연히 있으니, 잠깐 사이에 우물물 높이가 일곱 길쯤 솟아올라 절의 당간(幢竿)과 같을 정도였다. 궁중 사람들이 모두 놀라 그 우물을 금광정(金光井)이라 하였다. 태현은 일찍이 스스로 청구사문(靑丘沙門)이라 일컬었다."

일연은 이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대덕 태현은 유가업의 비조이며 남산의 용장사에 머물렀다. 그 절 안에 1장 6척의 미륵석불이 있었다. 태현은 항상 그 주위를 돌기 좋아하였고, 그때마다 불상도 또한 태현이 도는 대로 따라 얼굴을 돌렸다. 태현은 지혜와 변재가 정밀하고 민첩하여 무슨 일이든 결탁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였다."

유가유식과 계율의 대학자

한중일 삼국서 석학으로 존경

화엄가로 출발해 유식으로 전향

였다. 대개 상종(相宗)의 답론(答論)과 인식수단(量)은 그 뜻이 매우 깊어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국의 이름 높은 선비 백거이(白居易)도 이것을 연구하다 말고는 말하기를, "유식(唯識)은 그속에서 깨닫기가 어렵고, 인명(因明)은 분석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배우기가 어렵게 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태현은 유독 그 잘못된 점을 판정하고 깊은 뜻을 열어 보임이 마치 능한 백정이 여유 있고 능숙한 솜씨로 소를 잡아 기르는 것과 같았다. 동국의 후진들이 모두 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며, 중화의 학자들도 자주 그의 글을 얻어 안목으로 삼았다.

중국의 도봉은 「태현법사의기서」(太賢法師義記序)에서 태현을 드높이 기리고 있다. "그윽한 풍모는 맑고 크며 도의 기품은 높고 웅장했다. 뛰어난 풍채와 드넓은 도량으로 스무 살을 지나서는 출가하였고, 서른 살이 되어서는 교화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취를 감추고 만남을 멀리해서 마침내는 행동을 숨기고 덕망을 감추었다. 불도를 펼침의 변화함을 탄식하고 불법의 체계가 무너짐을 한탄하여 안으로 『유가잔요』3권을 찬술하고, 『유식결택』 1권, 『보살계중요』 1권 및 『본모승』 1백송을 지음으로써 후세에 전하였다. 말은 우아하고 뜻은 깊었으며 글월은 간략하고 의미는 풍부하였다. 글이 뽀아내는 지혜의 빛은 더욱 환해졌고, 빛이 뽀아내는 깨침의 산은 더욱 눈부셨다. 바라건대, 갈림길에서 헤매게 되면 곧바로 가르쳐 인도하는[南指] 수레를 살피고, 그 모양과 얼굴을 탐하게 되면 우러러 서쪽 나라[西秦]의 거울을 불지언저."

일본의 명조는 이렇게 적고 있다. "원족법사의 문하였던 도중

의 제자가 지금의 태현이다. 지금 법사는 처음에는 화엄을 익히다가 나중에 법상에 들었다.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거닐며 생각했고 항상 거문고를 탔다. 밖으로는 덕행을 숨기고, 안으로는 광명을 품어 『보살계본중요』(에 실린 도봉이 쓴) 「서」에서 이르기를 '행동[用]을 숨기고 덕망[光]을 감췄기 때문에 태현(太賢)이라고 한다. 이는 매우 어질다는 뜻을 말함이다' 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현을 기리는 한중일 전기류들은 한결같이 "행동을 숨기고 덕망을 감춘" [潛用韜光] 그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2. 자은 유식의 비판적 수용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한 철학으로 불리는 불교 유식학의 주요 담론은 '유식의 반학' (半學)이라고 하는 사분설(四分說)과 삼류경설(三類境說)로 대별된다. 인식 대상의 성질을 분류하는 삼류경과 달리 사분설은 인식주관의 작용을 분류하는 설이다. 흔히 '안난진호(安難陳護) 일이사사' (一一三三)란 관행구로 널리 알려진 사분설은 우리의 의식 작용을 네 단계로 나눈 심분설이다. 호법(護法, 531-561)이 널리 주장해 왔다. 사본은 우리의 의식 작용을 우리 마음에 던져진 객관 사물의 그림자인 상분(相分), 마음에 일어날 때에 상분에 변현하는 동시에 그것을 인식하는 작용인 견분(見分), 인식 주관인 견분의 활동을 점검하는 의식작용인 자증분(自證分), 다시 자증분의 활동을 점검하는 의식 작용인 증자증분(證自證分)의 네 부분이다. 태현은 호법의 설을 계승한 규기(窺基, 632-682)의 설을 따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태현은 사분설에서 견분과 상분의 종자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 규기의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설' [或同或異說]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밝히고 있다. 그는 "같은 종자[同種]일 경우에는 한 식의 몸체가 상분과 견분 2분으로 전사(轉似)해서 생기하지만 한 마리의 달팽이[扁牛]에서 돌아난 두 뿔과 같다"고 하였다. 또 태현은 "다른 종자[別種]일 경우에는 몸체가 견분으로 전사하고 상분의 종자라도 전사하며 또한 상분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저것과는 유사해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며, 상분은 마음의 분별로 말미암아 생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동종이지만 때로는 별종이다"는 호법의 설을 정의로 받아들였다. 다시 그는 우리의 인식대상을 그 성질상으로 보아 성경(性境)과 독영경(獨影境)과 대질경(帶質境)의 셋으로 나눈 삼류경설에 대해 독자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장(玄藏, 602-664)이 스승 계현(戒賢)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혹은 그의 장안으로 알려진 삼류경설은 규기의 『성유식론장중주요』와 그 제자인 혜소의 『성유식론요의등』에만 계승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계승은 다음과 같다.

"성경은 마음을 따르지 않고 [性境不隨心] / 독영경은 오직 견분만을 따른다 [獨影唯從見] / 대질경은 심경과 본질에 통하니 [帶質通情本] / 성과 종 등은 따라야 한다 [性種等隨應]." 이 계승에 근거하여 태현은 규기와 변별되는 삼류경설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대상으로서의 실재성[本質]을 갖춘 성경은 주관과 다른 종자에서 생겨 주관의 성질의 선악에 좌우되지 않고 존재 영역[界繫]을 달리하여 다섯 감각기관에 비치어 오는 것을 다섯 의식이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는 객관세계(제8식의 상분)이다. 반면 대상은 대상이지만 그 실재성을 소유하지 못한 것[幻]인 독영경은 별도의 객관적 존재가 없이 주관에 단독으로 드러난 환영처럼 눈병 난 사람의 앞에 보이는 토끼뿔 혹은 거북털(제6식의 對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성질을 함께 지니고 있는 대질경은 삼증을 뺀으로 잘못하는 것과 같이 본질은 있으나 그대로 영사(影寫)되지 않은 경계이다. 즉 제7식이 제8식의 견분을 연취(緣取)하여 실아(實我)라

는 집착의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며 제6식이 과거를 미루어 생각함과 같은 것이다. 이 담론은 사분설에서 제기된 견분과 상분의 동일성과 차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이론이다. 즉 종자의 동일성과 차이성의 논증에 잇따르는 견분과 상분의 삼성[善, 惡, 無記]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또는 삼계의 존재 영역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담론이다.

이를테면 "성인의 인식이 초선(初禪)에서 행해졌을 때에 삼식(三識)이 더 높은 세계[上界]의 색을 그 인식대상으로 취하며, 그것은 초선의 경우도 이선(二禪) 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재영역[界繫]을 달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규기의 해석과 달리 태현은 "초선계(初禪繫)의 식인 차기식(借起識)을 빌려 오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른 법으로서 본질을 삼지 않는다면 저 견분은 어디에서도 본질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까닭은 더 높은 세계에 태어나도 아래의 세계[下界]를 인연하는 것도 역시 성경이 능연심(能緣心)을 따르지 않고 독립자존하여 그 존재영역을 달리한다는 계불수심(繫不隨心)의 원칙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능熏(能熏)은 제칠식의 상분이고 소熏(所熏)은 본질인 제팔식의 견분의 종자로서 무부무기(無覆無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규기의 견해와 달리 태현은 "'오직 질분(質分)으로부터 종자를 혼습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그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唯從質分熏種非餘] 본질인 제팔식의 견분이 제칠식의 상분의 종자를 혼습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제칠식이 제팔식을 혼습한다는 종래의 통설을 뒤집는 것이며 태현의 독자적인 해석의 지평이다.

유식으로 다른 교학 통합 이끌어

원효·법장과 다른 독창적 해석

지혜는 바깥경계의 반영산물

3. 「기신론」과 화엄학의 유식적 통합

신라의 불교사상가들은 불설의 핵심인 중도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요교학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교학을 통합하였다. 대표적인 저술가들이었던 원효와 경흥과 태현의 경우는 특히 그러했다. 태현은 화엄가로 출발하여 유식으로 전향하였지만 그의 52종 저술에는 불교의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태현은 『대승기신론내의약망기』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별기』와 『대승기신론소』,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와 『화엄요교장』 및 『화엄감목』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혹은 요약 정리하면서 편집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대승기신론』에 대한 원효와 법장 학설의 대표적 차이인 생(生), 주(住), 이(異), 멸(滅)의 '사상' (四相)과 「생멸인연의」(生滅因緣義) 속의 '오의' (五意)의 팔식 배대에서 독자적인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시각(始覺)에서의 '사상'에 대해서는 원효와 법장의 견해를 자신의 평가 없이 원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반면 태현은 심식설 이해와 관련하여 『대승기신론내의약망기』 6장의 「생멸인연의」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태현의 해석 중 주목되는 것은 본식(本識)을 다시 전식과 인식과 전식과 현식의 넷으로 나눔으로써 오의를 6종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원효와 법장에서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태현은 오의를 크게 본식위(업/전/현식)와 사식세분위(지/상속식)의 둘로 나눈다. 그런 뒤에 본식을 다시 네 식(전/업/전/현)으로 나눈다. 앞의 네 식은 별칭이 두 개씩이지만 뒤의 두 식



용장사터 삼륜대좌불. 한국에 하나뿐인 삼륜대좌불로 <삼국유사>에 근거 미륵불로 추정되고 있다. 태현 스님이 용장사 미륵불을 돌던 미륵불도 함께 얼굴을 돌렸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은 별칭이 하나씩이다. "이 여섯 가지 뜻 가운데 처음의 하나는 소의(所依)이고 뒤의 다섯은 능의(能依)이며 또한 차례로 능의와 소의가 된다. 그리고 처음의 하나는 변하지 않는 뜻[不變義]이고 뒤의 다섯은 변하는 뜻[隨緣義]이다. 또 처음의 둘은 아리아시의 자체분이고 다음의 둘은 아리아시의 견분과 상분의 이분이며, 마지막 둘은 사식(事識)과 세분(細分)의 견분과 상분의 이분이다. 사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첫째는 사식을 곧 육식으로 보는 것이니 지(知)라고 『능가경』에서 바깥 경계를 들어 설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식을) 곧 칠전식으로 보는 것이니 제7전식 또한 해수(慧數, 제7식의 심리작용)와 상응하여 바깥 경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知)라고 한 것이다." 태현은 여섯 가지 뜻 중 처음의 하나는 '소의' 이자 '불변의' (不變)이지만 뒤의 나머지 오식은 '능의' 이자 '수연의' (隨緣)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원효와 법장에서서 볼 수 없는 태현의 독자적 관점이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방인, 「태현 유식사상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2)
- 한국사상연구회, 「자료와 해설: 한국의 철학 사상」(예문서관, 2002).
- 고영섭, 「한국불학사」(연기사, 2005).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세안타올

샤워타올

수세미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물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